

류 재 경  
비전건축사사무소 (인천)  
by Ryu Jae - Kyong

# 이야기가 생겨나는 소도읍 만들기 -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하여

Making a SmallCity Full of Stories -  
Thoughts on SmallCity Development  
Plan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가슴벅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소도읍 만들기는 도로나 광장 등을 만들어 내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곳에 살아 숨쉬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나는 소도읍 만들기를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중인 '소도읍 육성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 그간 관여했던 인천광역시 강화읍의 예를 들어 이야기가 생겨나도록 하고 싶다.

##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12년까지 앞으로 10년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전국 194개 소도읍이 순차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중추 소도시로 집중 육성된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도읍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적, 공간적 범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단계 사업 계획 기간은 3년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도읍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소도읍은 주변 농어촌지역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시 주변농어촌지역과의 관련성을 충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교육·문화시설 등 배후 농어촌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 배후 농어촌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계획은 배후농어촌의 이용수요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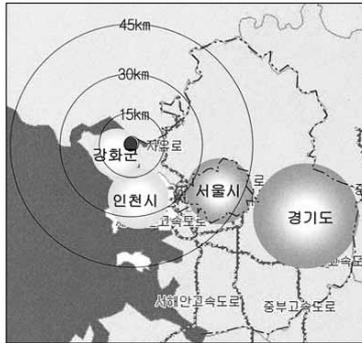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소도읍 중 상향식 공모제를 통해 육성협약을 체결한 2003년 5월에 14개읍, 2004년 6월에 22개읍, 2005년에 7개읍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소도읍 사업 대상지역과 중요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무순으로 육성방향 요약 정리함)

▷ 2003년 대상지역(14개읍)

1. 인천광역시 / 강화읍  
역사·문화체험형 박물관 도시
2. 강원도 / 평창읍  
관광·실버산업 활성화를 통한 휴양도시
3. 충청북도 / 영동읍  
과일테마 관광·휴양공간 조성 및 연계 벨트
4. 충청남도 / 금산읍  
인삼, 약초산업의 메카 및 건강도시
5. 충청남도 / 홍성읍  
전통문화와 청정환경 문화·환경도시
6. 전라북도 / 진안읍  
천혜의 자연환경속의 청정 환경도시

7. 전라남도 / 화순읍  
살기좋은 문화 관광 전원도시
8. 전라남도 / 장흥읍  
전남 중남부 생활권 중심지
9. 전라남도 / 해남읍  
전남 서남부지역의 행정·문화 관광지
10. 전라남도 / 함평읍  
생태체험관광·서남해안 거점지역
11. 경상북도 / 영덕읍  
생태휴양 관광마케팅을 통한 중심지
12. 경상북도 / 봉화읍  
청정자연환경과 관광자원화 도시
13. 경상남도 / 가야읍  
기존산업활성화, 신산업환경 구축
14. 경상남도 / 합천읍  
산물,자연,문화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수도권 제1의 자연생태·역사문화관광도시 강화

▷ 2004년 대상지역(22개읍)

1. 울산광역시 / 온양읍  
자족적 도·농 중심도시
2. 경기도 / 팽성읍  
국제 커뮤니티의 국제공동체 마을
3. 경기도 / 양평읍  
생태여가, 친환경산업 전원도시
4. 강원도 / 주문진읍  
자족적 생산능력 해안어업형 도시
5. 강원도 / 거진읍  
금강산 나들목·통일 전진기지
6. 충청북도 / 매향읍  
청정석회 첨단산업 도시
7. 충청북도 / 괴산읍  
고추, '잠자리 고을' 육성도시
8. 충청남도 / 유구읍  
전통산업 활성화, 유구자카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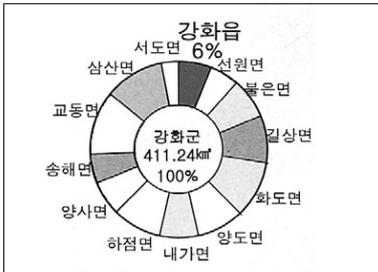
9. 충청남도 / 강경읍  
첫갈산업의 메카, 근대역사 관광도시
10. 충청남도 / 태안읍  
해양과 내륙 허니 포트형 거점도시
11. 전라북도 / 신태인읍  
농촌산업 제고 통한 풍요의 고장
12. 전라북도 / 운봉읍  
국악과 자연이 고원속의 레포츠 도시
13. 전라남도 / 남평읍  
전남 중심부의 신행정 수변 전원도시
14. 전라남도 / 구례읍  
관광, 스포츠, 문화도시
15. 전라남도 / 무안읍  
양파한우와 갯벌낙지, 청정지역
16. 전라남도 / 완도읍  
살고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17. 경상북도 / 화양읍  
세계적인 소싸움 축제의 메카
18. 경상북도 / 고령읍  
전원 문화 관광도시
19. 경상북도 / 울진읍  
천혜의 자연자원 활용 지역 관광
20. 경상남도 / 하동읍  
물길과 꽃길 속의 관광 전원도시
21. 경상남도 / 산청읍  
모험레포츠와 한방 휴양 건강도시
22. 제주도 / 애월읍  
생태관광을 실현하는 관광도시

▷ 2005년 대상지역(7개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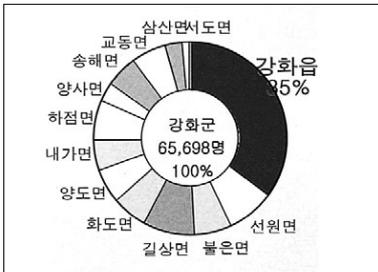
1. 부산광역시 / 장안읍  
청구, 청산, 청해가 어우러진 소도읍
2. 대구광역시 / 다사읍  
환경친화적 안전, 편리한 소도시
3. 경기도 / 전곡읍  
선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북부 중심도시
4. 강원도 / 홍천읍  
가족 중심의 녹색체험 소도읍
5. 경상북도 / 청송읍  
건강한 청정 휴양도시
6. 경상북도 / 예천읍  
전통스포츠와 바이오 도시
7. 경상남도 / 남해읍  
꽃과 바다, 사람이 함께하는 보물섬



강화읍 위치



강화읍 면적비율



강화읍 인구비율

### 소도읍(강화읍)의 문제점 인식과 가능성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대안의 모색중 한계에 달한 소도읍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소도읍의 인구는 최근 20년 동안 35% 이상 감소하고 주요 도시기반시설 정비 수준은 도시지역의 50%수준이다. 교육, 문화, 사회복지 여건이 더욱 열악함을 말할것도 없다.

기존의 강화읍은 정주민구의 감소, 상점가의 정체, 방재상 위험 노출, 고려 문화 요충지의 훼손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하다.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인프라의 시급한 정비 노력은 기존 시가지 곳곳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거론해야 하는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 활동의 장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의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언급한 문제들이 하나씩 매듭 지어질때면 이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의 도시 매력과 시민 생활의 질과 지역 발전이 현실 되어 나타날 것이다.

개성있고 활기찬 강화읍의 다양한 이야기 꺼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1) 거리환경 정비사업

- 무표정한 건물에 표정 입히기... 포인트 창문의 다변화 및 무질서한 간판정비
- 건물 벽면 녹화 및 옥상 녹화, 강화군청 담장 철거 후 휴게 공간화.

#### 2) 친근한 가로 가꾸기 지원사업

- 건물과 건물사이의 가동식 미관 담장 및 주차장 설치, 조경식수
- 각종 정류장을 간선도로에 간섭 없도록 재 정비 및 문화 권역별 컬러 노면화

#### 3)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 용흥궁 주변의 주민의 협조로 전통기 와집과 담장으로 보수
- 학생 사생대회를 통해 '희망의 강화읍' 아이디어 수집과 계몽

#### 4) 상징거리 정비사업

- 강화 및 초지대교에 문화·역사의 고장 상징물과 인포메이션 센터 건립
- 고려궁지 입구도로의 칼라블럭 문양화 처리 및 상징 게이트 건립

#### 5) 상징가 활성화 사업

- 고려전통거리 재현을 통해 토산품점 개설을 중앙시장 상가 중앙부분 개축으로 설치
- 통일된 브랜드 전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전문 상담원 파견(민관공동테마사업화)

#### 6) 주택 개량 사업

- 공공기능의 조건 충족 시 특별행정 지원

- 도로의 각진 부분의 도로화 협조시 지원

#### 7) 친수 공간(시설)의 조성

- 국화리 저수지의 물을 이용한 문예회관 주위 자연녹지에 생태 수변공원조성
- 광장과 공원에 분수시설 설치

#### 8) 역사·문화 유산의 상품화

- 일일 도심탐방 코스 개발 및 문화유산 이벤트화
- 남산 관광타워 설치 및 사계절 썰매장 설치

강화는 우리나라 민족사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훼손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극대화 노력을 뒷받침 할수 있는 행정체계가 더욱 요구 된다.

### 강화읍 종합 육성 계획 사례분석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의 지침을 시달받은 강화군은 도시허가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주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이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 졌다. 주민의식 전환 방안 및 지역경제 진흥 활성화 방안 등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강화읍사무소에 종합발전 추진 위원회를 설치 하였다. 기획단 회의 3회, 추진위원회 회의 3회,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 공청회 주회를 거쳐 본계획서가 마련되고 강화군 의회와 인천광역시 의회를 거쳐 최종안의 보고서가 행정자치부로 제출되었고 강화읍은 2003년도 대상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주민들은 기뻐하며 곧 이루어질 환상의 도시를 그렸다. 그러나 이시간 현재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만의 일로 주민들의 관심은 잊혀진 사실이 됐다. 강화읍 일원에는 현재 건축제한

고시(2003. 12. 10)가 발효되었고, 그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안은 2003년부터 3년간인 2005년 말까지 이다. 완료예정기간이 불과 1년여 남아있다.

문제는 행자부의 기준이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추진 부진시, 문제 해결 시 까지 잔여 육성사업비를 중단한다는 조항이 큰 걸림돌이 될것이다. 계획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지고 일처리는 호지부지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야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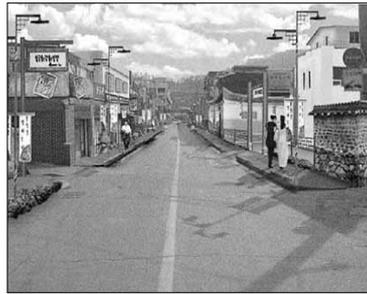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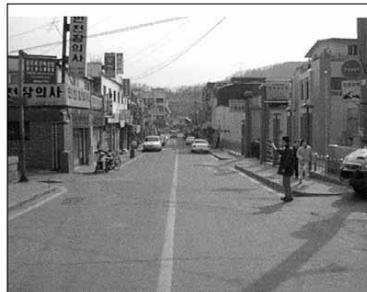
강화읍 가꾸기는 경제성 투자효과, 실천가능성들을 고려하여 단기(2003~2005년), 중기(2006년~2008년), 장기(2009~2012년)로 구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단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 강화민속 5일장을 테마로 직거래장 조성
  - 도·농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둘째,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
  - 문화재 밀집지역 환경정비
  - 도심주변 정비 및 공원녹지 확보
- 셋째, 강화역사 4개 탐방로 조성 사업
  - 시대별 문화재 네트워크 형성
  - 문화유적을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
  - 도시로 강화를 브랜드화
- 넷째, 주민참여형 지역가꾸기의 실천
  - 꽃길가꾸기, 담장 허물기
  - 깨끗한 상가 만들기 등

단기 실천 사업은 강화군이 육성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추진 형태로 결정되었다. 모두가 소망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론의 실천의

지가 또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다. 타 지역 소도읍 가꾸기에서나 적극적인 주민참여형 개발계획 실천의 소식을 듣고 싶다.



고려궁지 진입로 시뮬레이션

### 이야기가 생겨나는 그날까지

외국의 소도읍 개발 정책 사례나 관련 책자들을 통해 나타난 이야기가 생겨나는 소도읍 만들기는 주민과 전문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합하여 환경을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의 질'을 획득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계획이나 주택 환경정비는 공공단체가 맡아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위 및 공공 단체와의 적절한 파트너십에 기초한 마을 만들기 중요한 것은 소도읍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소도읍 만들기는 초기에 하드웨어적 환경정비에 앞서 주민 공동 생활상의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쏟아야 하며, 연차

적으로 소프트웨어적 소도읍 만들기 활동은 점점 더 다채로워져야 할것이다.

강화는 섬 전체가 우리 민족정기의 뿌리가 되는 단군의 성지이며, 호국의 성전이다. 또한 곳곳에 존재하는 선사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볼 때 강화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우리민족 문화의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강화군의 일부로 보여져 왔던 단순시각에서 벗어나 강화읍이 내재한 잠재력을 이제 우리 민족정신문화의 수도로 재조명 시켜야 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흐름임을 명확히 밝히려 한다. 소도읍이 제 모습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실질적 분산을 가져오는 국토전체의 효율적 이용과 적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강화민속장 조성 조건도



용흥궁 주변 정비 및 공원화 사업 조건도



강화 역사문화자원 현황